

-로그라인 : 치매 걸린 할머니와 한창 예민한 나이인 18세 수정은 이제는 곁에 없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갈등을 빚게 되지만 할머니의 실종사건을 통해 진실된 사랑을 느낀 수정은 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인물 정리

수정

어릴 적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겪은 적 있다. 유년시절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아빠를 그리워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수정에게 아빠를 잊으라고 하며 엄하게 키우려 한다. 어릴적 수정에게 할머니의 그런 매정한 태도는 상처로 다가왔고 할머니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계기가 된다. 현재까지도 할머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속 엄하게 잊으라고 했던 아빠를 들먹이니 화가나 할머니에게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괜히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수정은 일말의 죄책감을 갖다가 할머니가 실종되면서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와 이혼 후 수정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아빠와 삶의 방향에서의 차이 때문에 좋게 헤어졌지만 그것이 수정에게는 큰 아픔을 주었으니 미안할 따름이다. 현재 오후에 나가서 밤에 퇴근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수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엄마는 그럼에도 자신의 할 일을 척척 해내는 수정을 대견스러워 하고 있다.

할머니

어릴 적 수정에게 아빠를 잊으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할머니도 자신이 아픔을 갖고 있다. 할머니도 자신의 남편이 일찍 별세하여 동반자를 잃음의 아픔과 더불어 혼자 수정의 엄마를 키워왔던 힘든 과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도 수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다. 그런 수정이 가엾기도 하지만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 주길 바라는 마음에 아빠에 대해서는 어린 수정에게 엄한 태도로 훈육을 하였다. 그럼에도 수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치매가 걸린 시점에서 할머니는 수정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수정에게 계속 달을 보며 소원을 빌자고 하지만 그 행위는 수정의 심기만 거스를 뿐이다.

시놉시스

<기>

어린 시절 수정은 공원에서 아빠 없는 애로 따돌림을 당한다. 상처를 입은 수정은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며 서러움을 토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수정을 위로해 주지만 아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이에 상처를 입은 수정은 할머니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갖진 채 고등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된 수정은 현재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매일 베란다 조명을 보며 달이라면서 소원을 빌자고 수정을 부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에게 아빠 이야기를 하며 헛소리하는 할머니를 보고 화가 난다.

<승>

그날 저녁 퇴근한 엄마로부터 엄마와 아빠가 이혼 했던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 수정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할머니가 자신에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더라도 수정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사실이 더 괴심했던 수정은 할머니가 매일 보는 베란단의 전등의 전구를 빼버린다. 당연히 다음날부터 할머니는 수정을 계속 부르며 달이 안뜬다고 이상하다고 했으며 수정은 무시하려 한다. 하지만 계속 수정을 부르고 마트에 가려고 바쁘게 준비하는 수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할머니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게 된다. 조용해진 할머니를 뒤로 하고 수정은 그냥 나가버린다.

<전>

마트를 다녀온 수정은 할머니에게 소리 쳤던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며 집에 들어온다. 이상하게 집이 매우 조용하지만 할머니가 잠에 들었으리라 생각하며 수정은 부엌에 앉는다. 이상하게 엄마가 도착할 시간인데 엄마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수정은 식탁 위에 엄마의 가방을 확인한다. 엄마가 집에 왔나 하고 핸드폰을 보니 엄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3통이나 와 있었다. 엄마에게 전화해보니 집에 할머니가 사라졌다며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한다. 수정은 죄책감과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아 뛰쳐나가서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그렇게 계속 찾지만 할머니를 못 찾고 주저앉게 된다. 주저 앉은 수정의 머리 위에서 깜빡거리는 전구를 보며 할머니와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추억을 회상한다. 다시 할머니를 꼭 찾아야 겠다는 마음에 일어나고 찾으려는 순간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우선 가자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때 전화기 너머 엄마가 할머니를 찾은 듯한 소리가 들렸고 전화가 끊긴다. 수정은 다시 뛰기 시작하고 얼마 안가 할머니와 이야기 하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멀리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수정은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다.

<결> : 수정은 집에서 자신의 서랍에 넣어뒀던 전구를 다시 되돌려 놓으며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로그라인 : 치매 걸린 할머니와 한창 예민한 나이인 18세 수정은 이제는 곁에 없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갈등을 빚게 되지만 할머니의 실종사건을 통해 진실된 사랑을 느낀 수정은 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기-1씬, 2씬>

1씬 : 수정의 어릴 적 기억, 할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 수정이 현재 엄마와 할머니랑만 사는 이유 보여주기, 수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 설명, 지금도 아빠를 그리워 하고 있다는 사실 전달->할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빠의 그리움에 대한 의견 차 때문에 생겼었고 지금도 할머니가 불편하다는 사실 전달, 시간의 경과

2씬 : 할머니 치매에 걸리셨음(헛소리), 할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불편한 감정이 선명한 갈등으로 재조명, 할머니의 마지막대사(수정아빠 전화번호) 복선 제시, 달 보는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 복선 제시

<승-3씬, 4씬>

3씬 : 엄마의 등장, 이혼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할머니에 대한 갈등 심화, 베란다를 보는 것으로 복선 제시

4씬 : 할머니와의 갈등 최고조에 달하고 폭발, 할머니에 대한 화남 + 희미한 죄책감, 수정 다른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모습,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당황-> 죄책감-> 불안함으로 전환

<전-5씬>

5씬 : 할머니를 찾으러 다니지만 못 찾고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웅크리고 울어버림. 할머니가 사라지자 할머니와의 옛날 기억(달 보는 행위 복선 회수)이 떠오르며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을 기억함. 할머니를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찾았다는 소식을 들음. 그쪽으로 가보니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가 들림. 대화를 듣고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됨. 할머니의 대사(아빠 전화번호가 뭐더라 -> 아빠 찾아야 된다)에서 복선 회수

<결-6씬>

6씬 : 수정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 속에서 밀쳐내던 할머니를 품에 안게 됨.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할머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정의 모습. 서랍 열어 전구를 꺼내는 샷에서 베란다 보는 복선 회수. 수정 소원을 비는 행위를 통해 할머니와의 행복한 기억, 할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모두 한 번에 포용

콘티- 사진콘티, 무빙위주, 원테이크 위주, 마스터 위주

총 편집본 컷 수 : 52컷

실제 촬영 컷 수 : 37컷

수정

마르고 조숙한. 예민한. 평균 키/또래보다 왜소

복장 - 화려한 색, 디자인 X 집에서 편하게 입는 홈웨어 느낌



상하의 느낌만 참고해주세요

어린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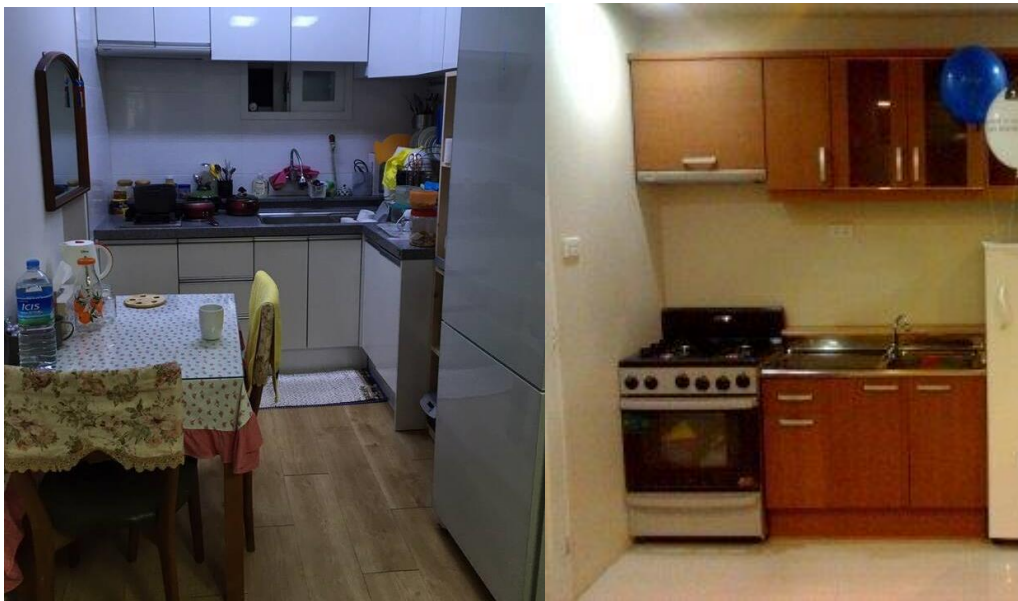
толматтолмат하고 귀여운 이미지. 또래보다 왜소.

복장은 평범한 여아 옷, 다만 치마나 원피스, 프릴이 달려있는 너무 화려한 옷은 X



수정의 집

방2칸 빌라/ 세련된 느낌x/ 현대적이기보단 옛스러운/ 사진 속 분위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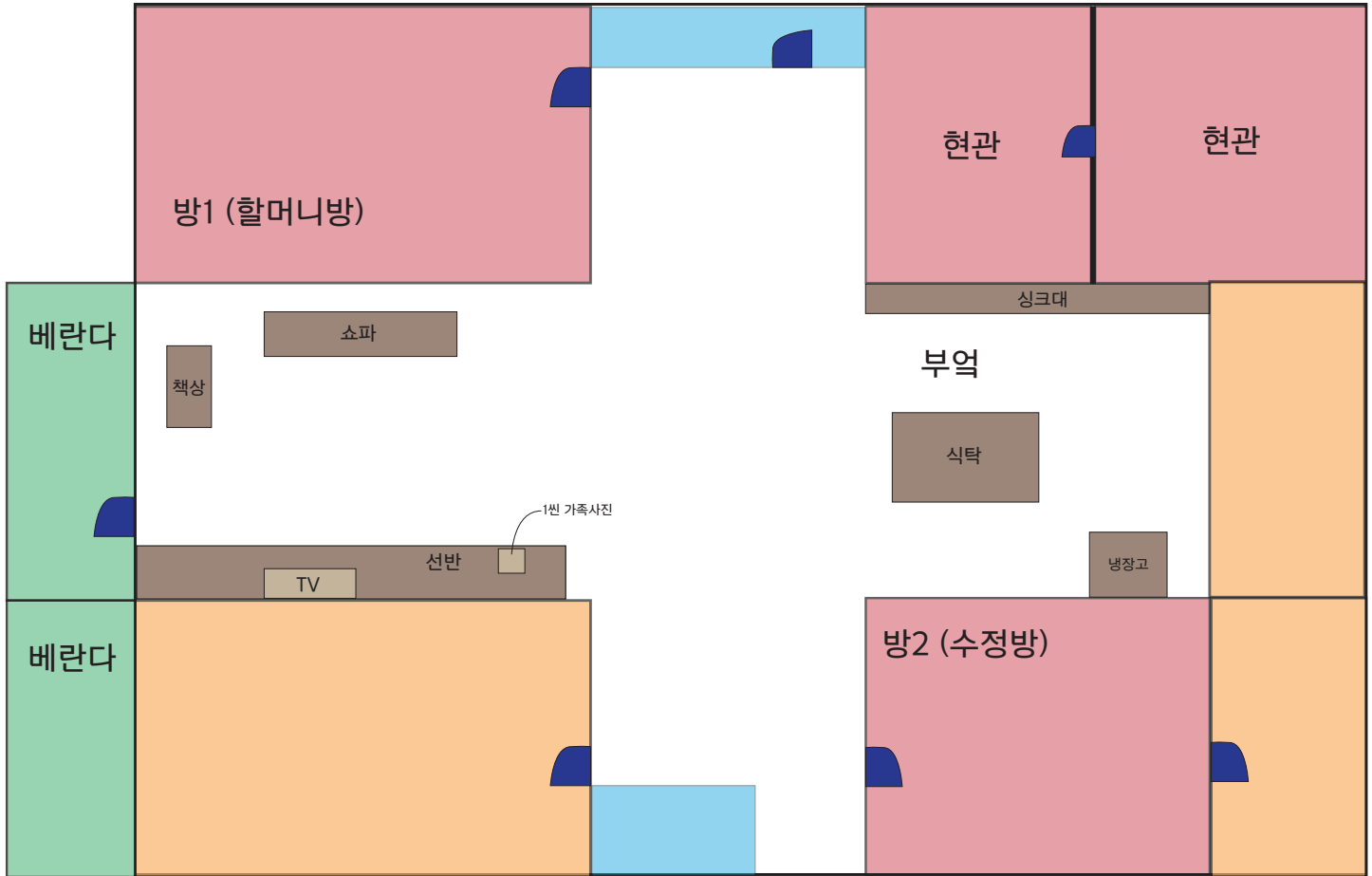


수정의 방

사진 분위기만 참고

수정의 방은 책상이 방 문을 등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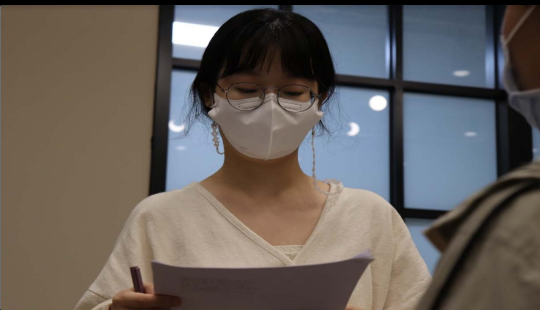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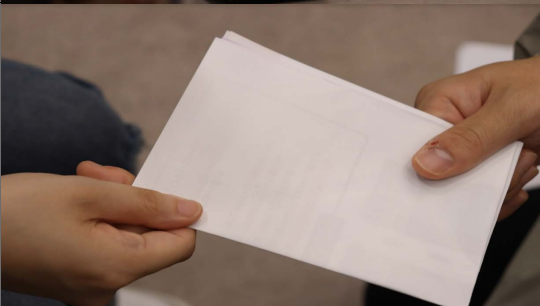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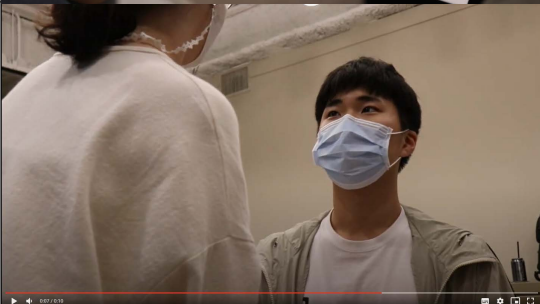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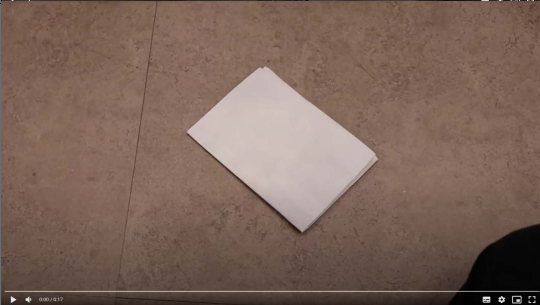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1-1 c1-1		<p>공원 / 낮</p> <p>수정: 나도 꺼주면 안돼? 아이: 아 싫어~ 수정: (팔을 잡으면서) 나도 하고싶단 말이야~ 아이:(수정을 밀치며) 아 싫다니까!</p> <p>수정 b.s 측면</p>	
#1-1 c1-2		<p>수정 바닥으로 넘어지며 놀란다. 아이: 너희 아빠 이제 없다며, 너랑 안놀아.수정: 아니야... 나 아빠 있어... 아이: 거짓말 하지마. 너희 아빠가 너 버린거야. 수정: 아니야... 아빠 있어... 아빠 있다구우...! 수정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달려간다.</p> <p>수정 w.s 측면 follow handheld/ 넘어진 후 정면으로 오면서 zoom in 수정 frame out</p>	
#1-2 c1-1		<p>수정의 집 (부엌~거실) / 낮</p> <p>요리하고 있는 할머니 (소리)문여는 소리 할머니: 어 수정이 아가 왔어? 어여 손씻고 와, 할머니가 밥 차려놨다.</p> <p>w.s 할머니 뒷 측면</p>	
#1-2 c1-2		<p>할머니 울고 있는 수정을 보고 놀람. 할머니: (무릎 꿇고 서서 수정이를 안으면서) 수정이 우니? 왜 울어! 누가 우리 아가 울렸어! 수정: (울면서 말 잘 안들리게) 지아가.. 나아 아 빠 없 다 고 했 으 어 할머니 표정이 굳는다.</p> <p>수정 frame in / 수정 ots follow해서 할머니 앉으면 b.s (약간)</p>	
#1-2 c2		<p>수정 계속 울고 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수정이 괜찮다. 똑 어 그치 수정 울음을 점차 멈춘다. 할머니 계속 다독여준다.</p> <p>수정이 b.s + ots</p>	
#1-2 c3		<p>할머니: (다독이다 말을 멈추고 조금 엄하게 말한다) 수정 아, 이제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대꾸도 하지말고 무시혀.</p> <p>=c1 / 할머니 b.s + ot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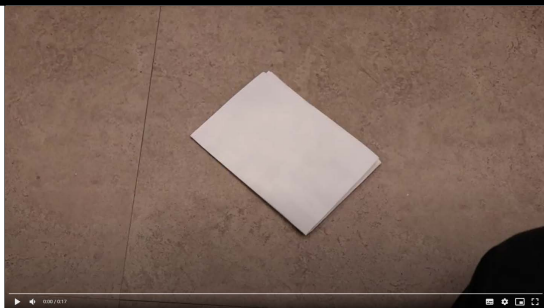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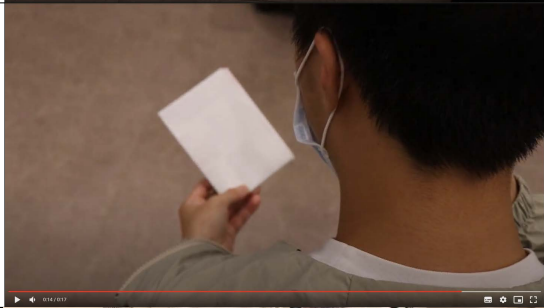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1-2 c4		수정 할머니 품에서 나오면서 의문을 가진 듯 물어봄 수정: 왜애? 나 아빠 있잖아~ 수정 b.s + ots	
#1-2 c5		할머니 한숨을 쉬면서 말한다. 할머니 : 하... 너이 아빠 이제 집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얘기 하지 말그라) 수정 : (수정이 말 끊으면서) 할머니 거짓말 하지마! 아빠 있잖아! (두리번 거리면서 선반위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가져와서 보여준다.) 아빠가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선반 시점 샷 f.s + 액자os	
#1-2 c6		할머니가 사진을 쥐며 가져가려 한다. 할머니 : 하이고... 수정아 그거 이리 내라. 수정 :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수정이 안 사랑해? 할머니도 수정이 버릴꺼지!!! 사진 c.u (high)	
#1-2 c7		할머니 : (액자 뺏으면서) 이수정! 한번만 더 그 아빠 소리 하기만 해버라. 그땐 아주 혼썰을 내버릴 테니까. 바보 같이 굴지 말고 똑바로 행동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너랑 느이 엄마 욕먹일 생각일랑 허지 말구.(액자 바닥에 내려놓는다.) = c3 할머니 b.s + ots	
#1-2 c8		바닥에 있는 사진 수정 : 할머니 미워! 할머니랑 이제 말 안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할머니 : 하유..... 사진이 줌인 되면서 현재로 돌아온다. 바닥에 사진 c.u + zoom in (수정의 방에서 찍기)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1-3 c1-1		수정의 집(수정의 방) / 밤 수정 자신의 방에서 옛 추억이 담긴 상자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고 있다. c8컷 그대로 이어서 가져오면서 zoom out	
#1-3 c1-2		(소리) 수정 : 어 엄마 어 할머니? 어 별일 없어. 그냥 똑같아. 수정 ots걸기 수정: ... 응. 몇시에 오는데?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알았어 응~ 전화 끊는다, 수정 : 하... 수정 사진 쳐다본다. 수정 어릴적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 잠깐 미소를 짓는다.	
#1-3 c2		(소리) 할머니 : 아가~ 얼른 나와라 달이 무지 크게 떴다야? 얼른 와서 소원 빌어라잉~! 수정 미소를 거두고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눈알을 굴린다. 사진을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박스에 다시 물건을 넣는 듯 행동을 하며 짜증난 듯 행동한다. (소리) 할머니 : 아가~ 뭐하냐? 빨리 나와 보라~ 수정은 신경질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문을 광 닫고 나간다. 수정 정면 b.s + 박스 os (low) frame out / focus out+문등	
#2 c1-1		수정의 집 베란다 / 밤 조명을 보고 있는 할머니 뒤에 수정이 다가온다. 할머니 정면 t.b.s + 수정 os	
#2 c1-2		수정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수정을 보고 한손으로 수정을 잡아끌고 옆으로 오게 한다. 할머니 : 어 우리 아가 왔어? 저기 저기 보이지? 봐바. 수정의 몸에서 얼굴로 화면이 올려지고 수정의 진절머리 나는 듯한 표정이 보인다. 수정을 할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며 한숨을 쉰다. tilt up -> 수정 w.s~b.s	
#2 c2		(소리)할머니 : 어여 소원 빌어라 소원! (소리)수정 : 할머니.. 저거 달 아니라고 했잖아. 나 지금 바빠 조명 os high (or 조명 ins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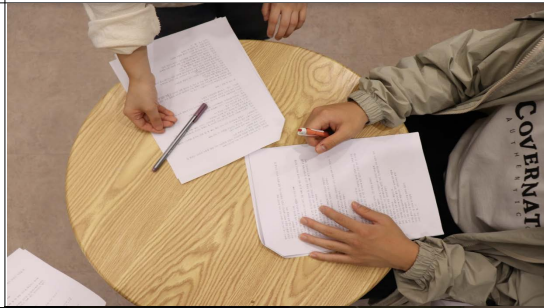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2 c3		<p>(소리)할머니 : (수정을 무시하고) 우리 아가 그럼 아빠 올 때 통닭 사오게 해달라고 빌어볼까? 수정 : (갑자기 짜증이 솟구친 듯/건드리지 않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 듯/할머니에게 붙잡힌 손을 뜯어내면서) 하... 몇 번을 말해. 저거 조명이라고. 그리고 아빠 얘기 하지마라고 했지. (더 할말이 있는 듯 하지만 그냥 돌아서 가버린다.)</p> <p>=c1에서 수정 b.s~w.s (원테이크)</p>	
#2 c4-1		<p>방으로 쿵쿵 걸어가는 수정 (카메라 지나쳐서) 할머니 : 아가~ 어디가야..~ 느이 아빠한테 통닭 사오라고 전화할까? 수정 : (비꼬듯/혼잣말로) 전화해보든가~ 전화번호 기억도 못하면서...</p> <p>수정 정면 f.s 수정 frame out</p>	
#2 c4-2		<p>수정 : (비꼬듯/혼잣말로) 전화해보든가~ 전화번호 기억도 못하면서...</p> <p>할머니 뒷모습 f.s</p>	
#2 c5		<p>할머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수정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명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러다가 퍼뜩 무언가 궁극한 표정으로 혼잣말 한다. 할머니 : 스읍... 수정아빠 전화번호가 뭐였지..</p> <p>=c1</p>	
#3 c1-1		<p>수정 집 현관 / 새벽</p> <p>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엄마 신발을 벗고 터덜터덜 들어와 부엌에 온다.</p> <p>엄마 앞 follow b.s</p>	
#3 1-2		<p>엄마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신 후 지친 듯 의자에 털썩 앉는다. 수정은 엄마 온 소리를 들은 듯 방문을 열고 나온다. (소리) 수정의 방문 여는 소리 수정의 뒷모습이 걸려서 보이고 엄마는 그런 수정을 발견한다. 엄마 : 어 딸 미안 엄마가 깨웠지? 수정 : (눈을 비비며 대답한다.) 아니야 밥 안먹었지? 내가 간단히 차려줄게. 수정은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서 전자레인지에 올려진 국의 가스레인지를 키며 말한다. 엄마는 급하게 일어나서 그런 수정을 말리며 말한다.</p> <p>f.s(엔드) + 수정 os</p>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3 c2		<p>엄마 : 수정아 엄마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수정 : (엄마를 다시 의자에 앉히며) 됐어, 앉아 있어봐 내가 해줄게. 엄마 : (다시 의자에 앉히지며) 괜찮다니까... (감동/고마운 표정)</p> <p>엄마 정면 b.s follow</p>	
#3 c3		<p>음식을 올리는 수정 엄마가 수정을 들면서 말한다. (소리) 엄마 : 딸 고마워 잘 먹을게. (소리) 수정 : 뭘... ㅎ</p> <p>식탁 부감 INSERT</p>	
#3 c4		<p>싱크대에 기대 서 있는 수정 밥을 먹는 엄마를 쳐다본다. 엄마가 밥을 먹고 있다가 수정에게 물어본다 (소리)엄마 : 오늘 뭐 별일 없었어? 수정 아까의 일이 생각나긴 하지만 그냥 말하지 않는다. 수정 : (괜히 싱크대를 문지르며 말한다.) 그냥 평소랑 똑같지 뭐 엄마 : 응... 하이고... 엄마가 우리 딸 덕분에 힘이 난다. 수정 : 응...</p> <p>수정 w.s</p>	
#3 c5		<p>엄마 밥 먹다가 말고 수정의 마지막 대답이 뭔가 있는 듯 하여 물어본다. 엄마 : 오늘은 할머니랑 안 싸웠지? (소리)수정 : 엄마 :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소리)수정 : ...엄마 엄마는 아빠랑 왜 이혼했어? 엄마 : .. 할머니가 오늘도 아빠 얘기 했어?</p> <p>엄마 w.s</p>	
#3 c6		<p>수정 : ... (소리)엄마 : 음... 엄마도 수정이 나이 때 아빠가 집에 없었어. 수정 처음 듣는 얘기 인 듯한 표정을 짓는다. (소리)엄마 : 엄마..의 아빠는 음... 엄마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엄마도 곁에 아빠가 없는게 너무 힘들어서 항상 수정이 할머니한테 때 쓰고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우리 수정이는 말도 잘 듣고 의젓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p> <p>=c4</p>	
#3 c7		<p>엄마 : 엄마가 지금 이렇게 늙어보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거 같아. 엄마도 솔직히 말하면 수정이를 엄마 혼자 이렇게 키우는게 쉽지는 않거든. 할머니도 엄마가 힘들 걸 알고 수정이 아빠를 안 좋게 생각했나봐.</p> <p>=c5</p>	

Cut	Video	Context	Time
#3 c8		<p>수정 : 그림... 아빠가 엄마한테 뭐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왜 이혼한건데? (소리)엄마 : 엄마는 지금도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연락도 가끔 해. 수정이도 지금까지 아빠랑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아? 수정 : ...응. (소리)엄마 : ... 엄마가 미안해. 수정이가 아빠 얼마나 좋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못 보게 해서 수정 : 아니야... (혼잣말로) 나는 그냥 할머니가 나한테 그 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돼... (소리)엄마 : 할머니가 왜? 수정 : 어? 아니야...~ 수정 베란다 쪽을 바라본다.</p>	
#3 c9		<p>=c6 에서 디지털 줌으로 b.s</p> <p>베란다 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버린다.</p> <p>수정의 뒷모습 os로 베란다 수정 frame out</p>	
#4 c1		<p>냉장고를 확인하고 있는 수정 리스트를 식탁위에서 적고 있다. 수정 : 어. 우유 없어. 계란은 조금 있어서 나중에 사면 될 거 같아. 고기? 무슨 고기. 미역국? 아 그러네. 갖고 싶은 거? 됐어. 미역국만 먹자. 알았어. 이거만 사오면 돼지? 어~ 리스트를 확인 중인 수정 (소리) 할머니 : 수정아~ 아가~ 이리 와보거라.(계속 부른다.) 수정 고개를 들고 한숨을 쉰다. 수정 뒷모습 w.s follow</p>	
#4 c2		<p>#4 / 집 부엌 / 밤</p> <p>할머니 : 수정아~ 빨리 와바라 달이 이상해. 달이 안뜨고 있어. 빨리 와봐라. 수정 현관으로 나가며 (소리)수정 : 나 바빠. 마트 가야돼. 할머니 빨리 들어가서 자.</p> <p>할머니 사측 b.s</p>	
#4 c3		<p>할머니 : 수정아 빨리~ 아가~ 빨리 와보거라 너가 와야 될 거 같다 아가~ (소리)수정 : (짜증난 듯)아 달이 어떻게 안 떠!</p> <p>조명 c.u</p>	
#4 c5		<p>수정 현관에 앉아서 신발 신고 있다. 수정 : (신발을 신으면서 짜증난 듯) 그리고 좀 시끄러워 민원 들어와 조용히 좀 해! 순간 조용해 진다. 수정은 너무 심했나 싶어 뒤돌아 할머니의 눈치를 보지만 이내 여전히 짜증이 난 듯 말하며 나간다. 수정 : 나 마트 갔다 올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 수정 나가버린다.</p> <p>수정 m.s low</p>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4 c5		(소리) 문 열고 나가는 소리 할머니는 상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할머니 : 달이 안보이는디... =c2	
#4 c6-1		cut to 마트 다녀와 집에 들어오는 수정 마트에서 다녀와 비닐봉지에 사온 것들을 들고 들어오는 수정 수정 앞 follow w.s	
#4 c6-2		부엌으로 걸어가 짐을 두고 의자에 앉아 거실쪽을 바라본다. 수정 앞 follow b.s(low)	
#4 c7		베란다라는 불이 꺼져 있다. 베란다 insert	
#4 c8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본 수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엄마의 가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고는 엄마가 어디갔지? 하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낸다. 핸드폰에는 엄마에게 부재중 전화가 열통 넘게 와 있었다. =c6 b.s -> 가방 os	
#4 c9		엄마로부터 부재중 전화 13통 와 있는 상태 핸드폰 INSERT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4 c10-1		<p>급하게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수정 엄마 : (뛰고 있는 듯)어 수정아. 너 어디야. 수정 : 어? 나 집. 왜? 무슨일 있어? 엄마 : (헉헉거리며)집에 할머니 안 계셔. 밖으로 나간 거 같아. 일어나서 침대로 출발 수정 : 어? 언제? 엄마 : 모르겠어, 엄마도 방금 집에 왔다가 너도 없고 할머니도 없 길래. 찾으러 나온거야. 할머니 어디 간다고 하셨어? 수정 : ...몰라. 모르겠어. 나 그냥 마트가려고 나왔는데... 엄마 : 할머니 주무시는 거 확인 안했어?</p>	
#4 c10-2		<p>베란다로 다시 가서 확인 하고 없는거 보고 서서 통화 수정 : 아니... 그냥 나 마트 가려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계속 뭐라 말했는데... 엄마 : 우선 수정아 너도 빨리 밖으로 나와. 할머니부터 찾자. 수정 : 알았어... =c8에서 follow 침대 쪽으로 갔다가 베란다 쪽으로 가서 확인</p>	
#4 c11		<p>전화를 끊고 그대로 굳어서 서있는 수정 수정 f.s</p>	
#4 c12		<p>(소리)수정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나감 전구가 없는 조명 insert</p>	
#5 c1-1		<p>밤거리 / 밤 할머니를 이미 오랫동안 찾고 있던 수정은 이제 지친다. 수정은 헉헉 대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수정 m.s 앞 follow</p>	
#5 c1-2		<p>할머니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둘러쌓여 주저앉 아 좌절한다. 수정 : 헉...헉... 하... (웅크리고 울먹이며) 어떡ㅎ... 할머 니... 웅크린 수정의 머리에 빛이 깜빡깜빡 반사된다. 골목길 집 앞에 있는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다. 깜빡거리는 빛을 향해 울상인 표정으로 바라보는 수정 수정 m.s->b.s, 앞 follow -> 뒷사측 앉은 모습</p>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5 c2		<p>깜빡거리고 있는 전구</p> <p>flashback (소리)어린 수정 : 할머니는 소원 뭐 빌었어? 나는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 아빠 오면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두 가구 또,,, (소리)할머니 : 쓰읍! 또 아빠 얘기!</p> <p>전구 INSERT</p>	
#5 c3		<p>(소리)어린 수정 : 아 아니... 그냥... 나는 아빠 너무 보고 싶은데...</p> <p>(소리)할머니 : 예휴,,, 이 불쌍한 것... 이리 와보거라 (안아 주고 토닥토닥) 할미가 미안해... 울지 말그라..</p> <p>flashback 끝 수정 훌쩍이는 것을 정리한다.</p> <p>현재 수정 얼굴 t.b.s</p>	
#5 c4		<p>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찾으러 나서려고 한다. 그때 전화가 온다.</p> <p>수정 : 여보세요?</p> <p>(소리)엄마 : 어 수정아! 할머니 찾았어?</p> <p>수정 : 아니... 아직 엄마는 엄마 어디야?</p> <p>(소리)엄마 : 엄마도 아직 찾고 있는데...</p> <p>수정 : 어떡해... 할머니 어떡하지... 할머니 못 찾는 거 아니야..?</p> <p>(소리)엄마 : 수정아 울지마. 괜찮아. 우선 엄마가 경찰에 신고 해놨으니까 할머니 찾을 수 있을거야. 우선 집에 들어가자 응? 괜찮아.</p> <p>수정 : 어... 알았어... 엄마 지금 어</p> <p>(소리)엄마 : 어? 엄마? 엄마!</p> <p>수정 : 엄마? 엄마 할머니 찾았어? 어디 전화가 끊긴다.</p>	
#5 c5-1		<p>=c1 b.s 앞사측</p> <p>수정은 전화가 끊기고 엄마와 할머니를 찾으러 나선다. 수정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으면서 빠르게 걷기 시작한다.</p> <p>m.s 수정 정면 앞 follow</p>	
#5 c5-2		<p>한 블록을 건너 옆으로 틀었더니 저 멀리 엄마와 할머니가 보인다.</p> <p>뒷모습 o.s로 할머니와 엄마 f.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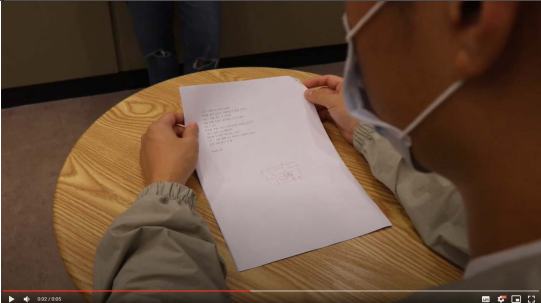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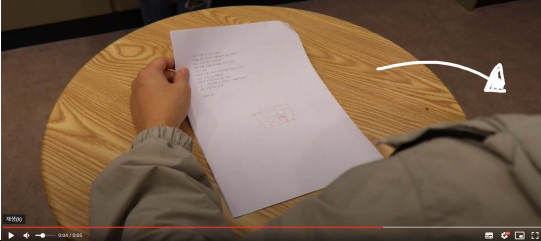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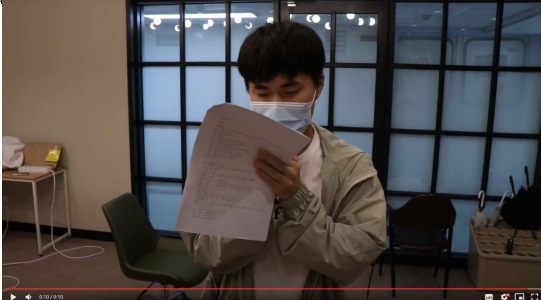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5 c6-1		<p>할머니와 엄마가 대화하고 있고 수정은 발견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엄마 : 엄마! 어디 갔었어! 별일 없었어? 괜찮아? 할머니 : (약간 울상인 얼굴로) 수정이... 우리 아가...</p> <p>할머니 엄마 c.u</p>	
#5 c6-1		<p>수정은 다가가려다가 멈춘다. 엄마 : 왜 또 수정이랑 싸웠어? 괜찮아. 수정이가 괜찮대. 빨리 집가자.</p> <p>수정 f.s</p>	
#5 c7		<p>할머니 : 아니 이것좀 나봐라잇! 수정이 아빠 찾아야 된다. 우리 아가 소원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달이 아닌 갑다. 내가 얼마나 빌었는디 엄마 : ...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괜찮아.</p> <p>엄마 ots로 할머니 b.s</p>	
#5 c8		<p>수정은 멈춰 서고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다. 엄마와 할머니는 집에 가기 시작함. (소리)엄마 : 엄마 괜찮아. 수정이도 다 알아.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소리)할머니 : 암~ 똑똑하지 그럼 내 새끼데. (소리)엄마 : 빨리 집에 가자</p> <p>수정 t,b,s</p>	
#6 c1		<p>수정의 방 / 밤 f.s 책상에 앉아 있는 수정 뒷사측</p>	
#6 c2		<p>b.s 행복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수정 사측 low</p>	

Title : 문등

Team :

Cut	Video	Context	Time
#6 c3-1		사진을 보고 있다가 수정 ots 사진 insert	
#6 c3-2		서랍쪽으로 몸을 숙인다.	
#6 c4		서랍 안에 수정이 숨겨놨던 전구가 있다. 서랍 여는 거 부감샷	
#6 c5		전구를 꺼낸 수정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c2	
#6 c6		전등에 전구를 끼워 넣는 수정 전등 c.u INSERT	
#6 c7		수정 전구를 끼우고 내려와서 소원 빔. 수정 정면 w.s follow + digital zoom	